乙亥子本과 그 傍系字本考*

金 致 雨**

〈목 차〉

Ⅰ. 序 言
Ⅱ. 乙亥子本과 그 書體
Ⅲ. 乙亥子本
1. 初鑄 乙亥子本
2. 補字와 補鑄 乙亥子本
3. 丁丑字와 竝用된 乙亥子本
4. 乙亥子 竝用 한글字와 竝用된 乙亥子本
Ⅳ. 乙亥子 傍系字本
1. 倣乙亥子體 木活字本
2. 乙亥子體 經書字本
3. 甲寅字體 實錄字와 混用된 乙亥子體 實錄字本
4. 乙亥子體 訓練都監字本
Ⅴ. 結 語
Abstract

Ⅰ. 序 言

조선시대 2대활자의 하나인 을해자[1]는 세조 원년(1455)에 주조하여 선조 25년(1592) 임난 이전 까지 사용된 관계로 그 활자로 인출한 책이 많이 있다. 또 그것이 우수한 활자이므로 16세기 후반인 선조시부터는 그 활자를 모방하여 만든 활자로 찍은 방계자본도 여러 종 있다.

을해자 인본을 인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인면이 깨끗한 초주 을해자본과 다른 활자와 함께 사용한 병용 을해본이 있다. 또 을해자 병용 한글자와

* 본 논문은 1997학년도 경성대학교 연구기초자료지원연구비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宣祖時에 再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함께 사용한 을해자본도 있다. 초주 을해자본은 그 외에도 그것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서 마멸되고 없어져서 보자을 만들거나 보주하여 인출한 책도 많다.

을해자는 우수한 활자이므로 이용도가 높은 서적들을 많이 인출되었다. 그러나 그 활자본만으로는 부족하여 번각본이 다량으로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원래의 활자본이 없는 것은 이 번각본을 통하여 을해자본의 특성을 살필수도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을해자본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찰은 후일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생략코자 한다.

방계자 인본으로는 임난전에 방을해자체 목활자본과 경서자체 을해자본이 있고, 임난후에 선조실록자본, 훈련도감자본 등이 있다. 방을해자체 목활자는 을해자의 중소자만을 모방하여 만든 목활자이고, 경서자체 을해자는 을해자를 아주 닮게 주조하였으며, 선조실록자는 을해자체 목활자를 만들어 감인자체 목활자와 혼용하였으며, 훈련도감자는 을해자를 모방한 목활자이다. 이러한 자본들은 자체가 외관상 을해자와 비슷하나 자획의 태세가 대체로 을해자보다 가늘고 정교하지 못한 공통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자체의 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해자본과 직관적으로 구분할려면 자획의 태세와 정교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을해자본과 그 방계자본을 살펴봄으로써 을해자가 얼마나 우수한 활자라는 것을 재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기록상 미진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을해자본과 그 방계자본은 활자의 서체가 유사하므로 간혹 잘 못 감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각종 고서목록에서 간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방계자본의 특성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을해자본도 더욱 분명하게 감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을해자 인본 중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세조 7년(1461)에 인출한 『訓辭』의 대자와 성종 13년(1482)에 인출한 『金剛經三家解』의 한글자이다. 전자의 활자를 훈사대자, 후자의 활자를 강희안 한글자(을해자 한글자)나 덕종자체 한글자라 부르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OHP필름에 위에 해당 글자의 면을 複寫하여 다른 판본의 동일 자본의 같은

활자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면 어느 활자인가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활자본의 식별에 OHP필름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다.

지금까지 을해자는 훌륭한 선학들에 의해서 字體와 鑄造에 대하여 부분부분 심도있게 연구되었으나, 기록이 미진한 부분은 그렇하지 못한듯 하다. 그래서 필자는 인본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고를 기술코자 하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을해자와 그 방계자 인본을 다 섭렵하고, 제시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일이므로 전체를 살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본만을 대상으로 삼고, 실사하지 못한 책은 다른 기록이나 목록에 의거하여 그 인본을 제시하였다.

Ⅱ. 乙亥子本과 그 書體

먼저 을해자의 인본을 살피기 전에 그 자본과 서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을해자는 주지하다 싶이 세조때 주조한 동활자로 자본은 세조 원년(1455) 강희안(1417~1464)의 글씨이다. 글자체가 편평하고 대체로 폭이 넓은 둥근 원필 계통이며, 중자에 강희안 글씨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소자는 주로 중자 아래서 쌍주를 달 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좁고 강희안의 글자체의 특징도 별로 잘 나타지 않는다.[2] 대자는 종이 1.8cm이고 횡이 2.3cm이며, 중자는 종이 1.3cm이며, 횡이 1.5cm이고, 소자는 종이 1.0cm이고, 횡이1.0cm이다.

강희안은 호가 仁齋이며, 조선전기 3대 繪畫家 중의 한사람으로 진체와 촉체를 겸한 서법에 아주 능한 세조 당시의 명필가이다. 강희안이 쓴 을해자체는 촉체인 송설체보다는 진체체인 왕우군체에 가까운 편이다.[3] 즉 강희안이

2)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서울 : 범우사, 1993), p. 79.
3) 金斗鍾, 前揭書, p. 154.

쓴 을해자체는 촉체인 송설체보다는 진체체인 왕우군체에 가까운 편이나 진체의 해서체로 폭이 길이보다 좀 넓은 듯하나 필치가 웅건하여 촉체와 비슷한 점이 보인다는 것이다.[4] 그러나 진체의 해서체로 폭이 길이보다 좀 넓은 듯하나 자획이 굵고 필치가 웅건한 점은 촉체에 가깝다. 이를 요약하면 진촉겸체라는 것이다. 이 활자의 대자, 중자, 소자 중 인서에는 중자와 소자가 적합하며 균형도 잘 잡혀 있는 편이다. 이 을해자는 갑인자와 함께 선조 25년 임난전까지 사용되었는데 임난이후에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 인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을해자를 최초로 고증한 이는 이인영씨이다. 그는 초간본『應製詩註』의 이첨 서문과 발문 일부가 강희안의 필적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 실사하여 을해자본을 감정하였다.[5]

을해자는 갑인자와 원래 다른 서체의 활자이므로 양자를 서로 비교하면 좀 이상한 점도 없지 않으나, 참고삼아 활자체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 활자를 살펴 보면 '於, 高, 有, 本, 形' 등이 있다. 앞의 3자의 자양은 을해자본에 많고, 뒤의 2자의 자양은 갑인자본에 많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 활자는 흔히 초학자를 위하여 을해자와 갑인자를 식별하는데 참고되는 활자이다.

그런데 그 중 대자는 강희안의 서체가 아니고 세조의 서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것이며, 그 초인본이 세조 7년(1461) 10월의 서문이 붙어있는『訓辭』이므로 활자명칭을 '訓辭大字'로 고침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분도 있으나 을해자 대자의 오류로 지적되었다[6].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 探求堂, 1979), p. 154.
5) 천혜봉, 前揭書, p. 79.
6) 上揭書, p. 79.

Ⅲ. 乙亥子本[7]

을해자는 세조 원년 주조되어 임난전까지 갑인자와 쌍벽을 이루면서 사용되어 온 관계로 그 인본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그 인본을 일일이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을해자을 사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인본을 살펴 보면 전체 인본을 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1. 初鑄 乙亥子本

보자나 보주가 별로 없는 세조 당시의 初鑄한 을해자로 인출한 책으로 인면이 아주 깨끗한다. 간년을 알 수 있는 인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世宗實錄(鼎足山本)	세조 2년경	규장각
文宗實錄(鼎足山本)	세조 2년	규장각
永嘉眞角大師證道歌	세조 3년	고려대
高麗史	세조6년경	규장각
貞觀政要詳解	세조 6년경	청분실서목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세조 7년(5월)	한국금속활본
禪宗永嘉集	세조 7년(5월)	한국금속활자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세조 7년(9월)	동국대도서관
佛說阿彌陀經	세조 7년(9월경)	성암고서박물관
訓辭	세조 7년(10월)	규장각
北征錄	세조 7년	최현배
御製將兵說	세조 8년	규장각
御製諭將三篇	세조 9년	새판한국의고활자

7) 인본의 구분은 본인이 임의로 한것 임.

金剛經諺解	세조 10년	한국금속활자
救急方諺解	세조 12년	청분실서목
周易傳義(康寧殿口訣)	세조 12년	규장각

앞부분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禪宗永嘉集』 등은 세조 7년 6월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울해자의 대자, 중자, 소자로 인출한 한문불전이며, 그 외에도 당시 이런 체제의 활자로 인출한 책은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天台四敎義』 등이 있다.

이들 한문불전에서 대자는 경의 정문, 중자는 경의 새김, 그리고 소자는 두 줄의 주를 다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가 여기서 시작하여 국역불전에로 이어졌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禪宗永嘉集』은 세조 7년(1461) 5월 효령대군이 회암사의 불사를 계기로 주청하여 국역이 완성되었다. 그 중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국역 불전이 그 해 9월 같은 체제로 인쇄되어 널리 반포되었으며, 또한 그무렵 『佛說阿彌陀經』의 국역 불전도 같은 체제로 인쇄되기도 하였다. 이런 체제의 국역 불전은 나중에 간경도감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8]

『훈사』는 세조 7년 6월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나서 그해 10월에 대자, 중자, 소자로 인출한 책으로 세조가 그의 세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책이며, 세조 7년 10월의 서문이 붙어 있어서 그때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訓辭』는 세조시 울해자본으로는 다소 늦은 인본이다. 그것의 기술목록은 아래와 같다.

訓辭 / 世祖(朝鮮) 撰. - 朝鮮活字本(乙亥字). - [世祖 7年(1461)]
1册, 零本(線裝) :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9行16字. 界. 四周單邊, 內邊郭 22×16.7cm ; 29.6×19.2cm.

跋 : 天順二年(1461)…李克堪跋

8) 천혜봉, 前揭書, p. 83.

後序：天順辛巳(1461)…崔恒敍
所藏本：卷1(1册)缺

이 『훈사』에서 사용한 대자를 이인영님은 을해자 대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기타 인본으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금강경삼가해』, 『어제병장설』을 들고 있으며, 백린님은 그 인본으로 『훈사』를 비롯하여 『대방광원각수타라요의경』, 『금강경삼가해』의 3종을 들고 있다. 이 중 『금강경삼가해』는 천혜봉님에 의하여 다른 활자인 정축자로 밝혀졌으며, 『훈사』는 두분이 같이 을해자 대자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이전의 목록인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에도 을해자로 나타나 있으며, 이 목록은 『고서종합목록에도』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訓辭
世祖(朝鮮) 撰. [世祖 7年(1461)]
2卷2册. [活](乙亥子) 29.1×18.9cm.
四周單邊. 半葉匡郭：22×16.7cm. 9行17字. 註雙行. 版心：上下花 紋魚尾.

序：天順二年戊寅…親寸.
卷末：同年…李克堪跋, 後序…天順辛巳(1461)…崔恒敍.
所藏本 5640：卷1(1册)缺.

이와 같이 종래는 그 대자를 을해자 대자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윤병태님에 의하여 그 활자가 訓辭大字라는 주장이 새로 제기되었다. 그 주된 이유를 들어 보면 을해자는 『성종실록』에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하였다고 하나 대자, 중자, 소자의 세가지를 전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고, 대자가 포함된 인본 중 간년이 분명한 것은 세조 7년의 『훈사』이며, 그 글자 중 중자와 소자만 강희안의 글씨를 닮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즉, 중자와 소자는 자체가 서로 닮았으나 대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주조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9]

9) 尹炳泰, 朝鮮祖大型活字考, 석사학위논문, 연세대대학원, 1975, pp. 22-24.

이에 대해 천혜봉님은 을해자 대자의 최초본을 『훈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본의 실사가 넓지 못한데서 야기된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훈사의 대자는 그 책의 서문이 쓰여진 세조 7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만든 을해자 대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지 분석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활자의 주조 사실은 일단 기록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해당 인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을해자의 주자발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기록도 불충분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의 인본을 통하여 자체를 명확하게 대조해 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방법의 하나가 OHP필름을 사용하여 어느 책의 해당 글자의 면을 복사하여 다른 책의 같은 글자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동일 자본의 같은 글자를 비교해야지 다른 자본의 같은 글자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을해자 대자와 훈사 대자가 같은 명칭의 활자인가 다른 활자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조 7년 10월 이전에 간행된 을해자본의 대자를 훈사의 대자와 비교하여 보는 일이다.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간년이 분명한 것의 하나가 그 해 9월에 간행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本)이므로 이것의 대자와 『훈사』의 대자를 비교하여 보자. 『한국전적인쇄사』에서 을해자 대자로 제시된 도판 131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글자와 『훈사』의 앞부분에 나타난 御製序에서 공통되는 글자인 '於', '汝', '知', '爲', '一', '不', '者', '著'자를 OHP필름에 복사하여 다른 책의 같은 글자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면 자본이 완전히 같은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8자는 자본이 동일한 글자이다. 그러므로 『훈사』의 대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을해자 대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훈사』를 훈사대자로 찍은 최초의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간년이 『훈사』보다 나중의 책으로 그와 같은 활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자. 그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간년이 분명한 것을 하나 들면 세

조 12년에 간행된 『주역전의』이므로 이것의 대자와 『훈사』의 대자를 비교하여 보자. 『한국의 고활자』에서 을해자 대자로 제시된 도판 16 『주역전의』의 글자와 『훈사』의 앞부분에 나타난 御製序에서 공통되는 글자인 '曰', '不'자를 역시 OHP필름에 複寫하여 해당 글자의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면 역시 자본이 동일한 같은 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다른 활자가 아니라 바로 동일 자본의 활자인 것이다. 물론 전체의 활자를 보더라도 동일 활자가 분명하다. 이와 같이 그 이후에 간행된 을해자본의 대자와 훈사의 대자를 비교하여도 같은 활자이므로 『훈사』의 대자는 그 이전부터 이후까지 사용된 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훈사대자는 이미 『훈사』가 간행되기 전에 만들어서 그 이후까지 사용된 을해자 대자인 것이다.

위의 책에서 제시한 도판은 실물과 같은 크기이므로 이렇게 대조하여 보아도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 관심있는 분들은 실제의 인본으로 대조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윤병태님은 이렇게 간년이 다른 인본의 글자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갑인자(중자), 훈사대자, 을해자(중자)의 서체만을 비교하여 훈사대자는 을해자보다도 갑인자(중자)를 닮은데가 많다고 하여,[10] 을해자 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비교하면 갑인자를 닮은 글자가 종종 있으나 이미 서로 크기가 다르므로 이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크기가 다르면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자본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같은 모양의 활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크기가 다른 대자나 중자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물며 같은 크기의 활자라도 자본이 다르면 얼마든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을해자의 자체는 대자와 중자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중자와 소자도 차이가 나서, 소자는 강희안 서체의 특징이 중자만큼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느 활자든지 대자, 중자, 소자는 자체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활자는 즉 을해자는 대자가 중자나 소자보다 좀 더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동일 크기의 활자에는 자

10) 上揭書, p. 23-24.

본이 동일하면 여러 종 나타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크기가 다른 활자에서 동일한 자체를 찾는 것은 무리이다.

손보기님은 이 을해자 대자를 세조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역시 을해자 대자와 다르게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 보면 "이 활자는 종래 을해자 큰 자로 알려져 있었다. 윤 병태는 이 활자로 맨 처음 찍혀진 것으로 보이는 『훈사(訓辭)』의 책이름을 따서 '훈사대자'라고 이름 지었다. 『訓辭』는 세조가 친히 쓴 머리글[御製序]과 본문은 세조자로 하고 나머지는 1455년 강희안자로 찍어낸 책이다. 윤 병태에 의하면 이 세조자는 갑인자에 더 가까운 필체이고 진양대군자와도 비슷하다. 1461년 10월에 쓴 세조의 서문이 이 책 끝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자는 그 때 만들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11]고 하여 세조자로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세조자로 이름하는 것이 더 알기 쉽고, 또 이글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세조가 즉위한 뒤의 일이므로 이 같이 부르기로 하였다"[12]고 하였으며, 위에서 든 세조 8년(1462)의 『御製將兵說』과 세조 12년(1466)의 『周易傳義(康寧殿口訣)』를 그 인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인본에 대한 설명은 보면 "1462년에 찍은 『어제병장설(御製兵將說)』은 한 줄에 큰 자 12자씩 7줄로 되어 있는데 1455년 강희안자가 들어 있는 줄은 줄 사이가 좁다. 1466년 3월 5일에 나누어준 『주역전의(周易傳義)』는 큰 세조자를 본문으로 하고 강희안자를 주(注)로 하여 판을 짜기 때문에 줄의 수가 장마다 다르다고."[13]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兵將說』의 판식을 다음 기술목록을 통해서 살펴보자.

御製兵長說 / 世祖(朝鮮) 撰 ; 申叔舟(朝鮮) 註解. -朝鮮活字本(乙 亥子).-[世祖 8(1462)]

1册, 70張(線裝) :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大字 8行13字, 中字 8行 17字, 小字註雙行. 界. 四周單邊, 內邊郭 22×14.7cm ; 27×18.4cm.

版心題 : 兵將說

11) 손보기, (새판)한국의 고활자(서울 : 寶晉齋, 1982), p. 91.

12) 上揭書, p. 91.

13) 上揭書, p. 91.

실제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최근 목록인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는 『훈사』의 판본이 을해자(중자)와 훈사대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역전의』와 『어제병장설』의 판본은 을해자(중자, 대자)로만 되어 있다. 그 『訓辭』의 목록을 그대로 轉載하여 보자.

訓辭

世祖(朝鮮) 撰. [世祖 7年(1461)]

2卷2册. [活](乙亥子, 訓辭大字) 29.1×18.9cm.

四周單邊. 半葉匡郭 : 22×16.7cm. 9行17字. 註雙行. 版心 : 上下花 紋魚尾.

序 : 天順二年戊寅…親寸.

卷末 : 同年…李克堪跋, 後序…天順辛巳(1461)…崔恒敍.

所藏本 5640 : 卷1(1册)缺.

〈(奎) 5640, 5734, 5735〉

이와 같이 최근의 목록에서 을해자 대자를 훈사대자로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목록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을해자본은 성종시에 와서 글자 획이 가늘어지고 보자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조시의 을해자본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간년을 알 수 있는 인본을 살펴보자.

佐理功臣錄券	성종 2년	조병순
經國大典	성종 2년	홍문관
魯山君日記(鼎足山本)	성종 2년	규장각
世祖實錄(鼎足山本)	성종 2년	규장각
睿宗實錄	성종 3년	규장각
國朝五禮儀箋	성종 5년	일산문고
宋史	성종 5년	청분실서목
高麗史節要	성종 7년경	서울대도서관
三國史節要	성종 7년경	서울대도서관
醫方類聚	성종 8년	일본궁내성서릉부
東文選	성종 9년	일산문고

地藏菩薩本願經	성종 10년	일본금서룡구장본
纂註分類杜詩諺解	성종 11년	서울대도서관
金剛般若波羅密經三家解	성종 13년	서울대도서관
永嘉大事證道歌南明禪師繼訟諺解	성종 13년	서울대도서관
湯液本草	성종 14년	일산문고
佛頂心陀羅尼慶	성종 16년	이희승
東國輿地勝覽	성종 18년	일산문고
救急簡易方	성종 20년	청분실서목, 복각
文山先生文集	성종 24년	회연서원

2. 補字와 補鑄 乙亥子本

을해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갑인자와 함께 주용되었다. 이렇듯 을해자는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종, 명종, 선조초에 나온 인본에는 활자가 마멸되고 보자도 많이 나타난다. 간년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經國大典	연산 5년	새판한국의고활자
救急易解方	연산 5년	화산서원
海東諸國記	연산 7년	국사편찬위원회
生員進士榜目	중종 2년	조병순
求政錄	중종 7년	청분실서목
癸酉司馬榜目	중종 8년	옥산서원
四聲通解	중종 12년	송석하구장본
老朴輯覽	중종 12년	동국대도서관
續東文選	중종 13년	성균관대도서관
朱子增損呂氏鄕約	중종 13년	연세대도서관
新編三軍一覽子平濟源註解	중종 15년	화산서림구장본
小保于公奏議	중종 15년	성균관대도서관
讀書錄	중종 15년경	손보기
王恭毅公駁稿	중종 18년	성균관대도서관

簡易瘍瘟方	중종 20년	화산서림구장본
訓蒙字會	중종 22년	단국대동양학연구소,영인
生員進士榜	중종 29년	조병순
韻會玉篇	중종 31년	일본존경각
庚子生員方	중종 35년	조병순
生員進士榜	중종 35년	조병순
聖宋明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중종 37년	조선사료집진
聖元明賢播方續集	중종 37년	조선사료집진
朱子大全	중종 38년	일산문고
大典後續錄	중종 38년	청분실서목, 복각
明太祖文集	명종 1년	일본봉좌문고
桂奏奏議	명종 4년	일본봉좌문고
讀杜詩愚得	명종 4년	청분실서목
懷麓堂詩集	명종 4년	국립도서관
靈驗略抄	명종 5년	동국대도서관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명종 6년	일본봉좌문고
異端辨正	명종 6년	일본봉좌문고
司馬榜目一嘉靖	명종 7년	성균관대도서관
天原發微	명종 8년	성균관대도서관
救荒撮要	명종 9년	청분실서목
小學書集解	명종 9년	조병순
唐詩正音集註	명종 11년	청분실서목
吳子直解	명종 13년	일본봉좌문고
十一家註孫子	명종 13년경	고려대화산
通典	명종 15년	도산서원
文武科別試榜目	명종 15년	조병순
春秋胡氏傳集解	명종 18년	일산문고
大明一統志	명종 19년	성균관대도서관
攷事撮要	선조 1년	고려대도서관

위의 목록중 『王恭毅公駁稿』의 기술목록을 살펴보면 다른 을해자본의 판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王恭穀公駁稿/王概(明) 撰. -朝鮮活字本(乙亥子混入補字).-中宗 18(1523)
2卷 2册(線裝) :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10行18字, 註雙行. 界. 四 周雙邊, 內邊郭 23.5×16.5cm. : 33×21.3cm

10항18자의 을해자본의 내변곽의 크기는 거의 여기에 나탄난 바와 같이 23.5×16.5cm 정도이다.

그러나 보자만으로는 서적의 인쇄가 원활치 못하여 선조 초기에 이르러서는 보주가 크게 이루어져 인본이 한결 깨끗하게 인쇄되었다. 그 보주인본으로 현전하는 것 중, 가장 앞선 것이 선조 6년(1573) 계유 12월 성균관 전적의 직책에 있던 심충겸에게 내사한 국역본 『內訓』(일본 나고야 봉좌문고 소장)이며, 이것은 그 해에 을해자의 큰 보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14] 그 인본으로는 간년을 알 수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5]

內訓	선조 6년	일본봉좌문고
癸酉式司馬榜目	선조 6년	김두종구장본
朱子曾孫呂氏鄕約	선조 7년 2월	연세대도서관, 복각
南軒先生文集	선조 7년	일본봉좌문고
國朝儒先錄	선조 7년	옥산서원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선조 7년	일산문고
司馬法集解	선조 7년	일본봉좌문고
尉 子直解	선조 7년	일본봉좌문고
六韜直解	선조 7년	일본봉좌문고
朱子大全	선조 8년	조병순
三略直解	선조 10년 10월	새판한국의고활자

위의 『여씨향약』의 인본 기술목록을 살펴보자. 이 목록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것이다.

朱子曾孫呂氏鄕約. -朝鮮木版本(乙亥子本飜刻).-[宣祖 7(1574)]

14) 천혜봉, 上揭書(한국금속활자본), p. 83.
15) 上揭書, p. 83.

1册, 零本(線裝) : 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10行18字, 註雙行. 界. 四周雙邊, 內邊郭 23.7×16.7cm ; 29.8×19.8cm.

外題 : 呂氏鄕約

종래 선조 6년(1573)의 癸酉字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을해자의 보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柳希春의 『眉巖日記草』 선조 6년 11월 6일조에서 "갑인자 주조의 철은 먼저 466근 1냥 1전을 받아 내놓았는데, 주자로 불린 것이 397근 3전이다"라고 한 것은 을해자의 보주를 잘 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기록에 의하여 계유자를 재주갑인자로 여기는 분들도 있었으나 선조 13년 金貴榮 저술의 『東園集』, '題鑄字都監契軸竝小識'에 의해서 재주갑인자의 주조 사실이 확인됨으로,[16] 계유자의 재주갑인자설은 완전 부인되었다. 따라서 계유자는 재주갑인자가 아니라 전술한 을해자보주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선조 13년의 경진자가 재주갑인자냐 아니면 재주을해자냐 하는 문제가 재주갑인자로 확인됨으로 선조 6년의 계유자설은 재주갑인자도 아니고 재주을해자도 아닌 을해자보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재주을해자에 관한 기록과 인면이 아주 깨끗한 인본이 없으면서, 앞의 유희춘의 기록과 보주가 있어서 인면이 다소 깨끗하여진 을해자 인본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서로 맞는 점으로 보아 이 기록은 일단 을해자의 보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을해자본을 번각한 판본도 수종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판본들도 을해자의 특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그 번각본의 모본은 세조시의 을해자본이나 그 이후의 보자본이나 보주본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7]

救急簡易方	성종 20년	청분실서목
東文選	중종 명종년간	일산문고

16) 上揭書, p. 56.
17) 金斗鍾, 前揭書, p. 207.

大典後續錄	중종 명종년간	청분실서목
增修附記 資治通鑑折膜續編	중종 명종년간	도산서원
唐詩正音集註	명종 11년	일본궁내성서릉부
靈驗略抄	명종조	동국대도서관
救荒撮要	명종조	청분실서목
小學集說懸吐	명종 선조년간	청분실서목
高麗史		서울대도서관
國朝五禮儀		간송문고
帝王歷年記		청분실서목
攷事撮要	선조 9년	청분실서목
李商隱詩集	선조조	청분실서목
國朝儒先錄	선조조	일산문고

3. 丁丑字와 竝用된 乙亥子本

을해자는 별개의 활자인 정축자와 병용하여 사용된 것도 있다. 그 인본이 『金剛經三家解』이다. 이 책은 冶父와 宗鏡의 주석에 朝鮮 得通의 설의와 합친 國譯解이다. 이 책은 세종의 명으로 착수하여 세조가 이어 받은 것이나 글을 맺지 못하고 승하함에 따라 그의 비인 貞熹王后가 學祖로 하여금 완성시켜 성종 13년(1482)에 300부를 인출케 한 것이다.

이 『三家解』는 정문의 대자는 정축자이고, 주석의 중자와 소자는 을해자, 그리고 국문은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인출하였다. 대자인 정축자는 이인영님에 의하여 종래 을해자 대자로 여겨왔으나, 천혜본님에 의하여 정축자라고 구명하여 잘못된 고증임이 밝혀졌다. 즉 양자를 비교하면 을해자 대자는 가로가 퍼지고 둥근 필의를 짙게 나타내지만 정축자는 세로가 길죽하고 서법이 그것보다 해정한 필서체이며, 주조가 정교로워 다른 대자의 활자보다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한국전적인쇄사』에서 을해자 대자로 제시된 도판 131 『楞嚴經』의 글자와 『金剛經三家解』의 '究竟無我分第十七'에 나타난 공통된 글자인 '世', '一', '告', '言', '心'자를 OHP필름에 복사하여 투영하여 보면

전혀 다른 활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천혜봉님은 이 활자를 세조 3년 정축에 주조하였다고 고증하고, 그 해의 간지를 따서 정축자라고 하였다.[18] 주조년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활자명칭에 간지를 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관주활자의 명명은 주조가 시작된 해의 간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병태님은 서명을 따서 정축자라고 부르지 않고, 금강경정문대자라고 불렀다. 이 글씨의 명칭은 『영가진각대사증도가』의 姜孟卿의 등 발에 '金剛經字', '金剛般若經正文以爲字本', 그리고 『오가해』의 金紐의 발에 '정문대자'라고 분명히 밝힌 이상, 이들 속에서 골라서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물론 위의 말들이 자본을 쓴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대형활자에서도 강목대자나 정문대자라고 하면 쉽사리 구분되며,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금강경』의 정문대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19] 이와 같이 활자명칭에 그 활자의 인본으로 가장 오래된 책의 서명을 따서 붙이는 방법은 주조년이나 자본을 쓴 사람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 주로 쓰는 방법이다. 그러나 간년이 분명한 이상 금강경정문대자보다는 정축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서 정문대자라고 한 것은 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손보기님은 이 활자를 덕종체자라고 하여 덕종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의 덕종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이 활자는 천혜봉(千惠鳳)이 처음 찾은 것이데, 그 뒤 윤병태의 고증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름을 금강경정문대자(金剛經正文大字)라고 부르지만 1457년 덕종자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세자로 있다가 즉위하기 전에 아버지 세조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덕종(德宗 1438-57)이 생전에 금강경 정문을 쓴 일이 있는데, 세자를 잃은 세조가 슬퍼하여 몸소 이 글자를 본받아 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세조는 불교에 마음이 쏠릴 수 밖에 없었고, 마음 둘 곳을 찾으려는 데서 불경을 많이 찍게

18) 千惠鳳, "丁丑字攷." 歷史學報(歷史學會), 35 36(1967), pp. 279-280.
19) 尹炳泰, 前揭書, pp. 34-35.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활자로 찍은 책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오가해(五家解)』라고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책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가 있는데 이에도 한글 활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여, 덕종자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덕종자설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활자의 명칭 부여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세조가 덕종의 글씨를 본받아 썼으나 덕종의 글씨가 아니라 세조의 글씨이므로 덕종자라는 명칭은 부적당한 하다는 것이다. 이 활자를 주조하기 위해 『금강경』의 정문을 세조가 몸소 썼다는 것을 여러 발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발문에는 〈親寫〉〈手寫〉〈宸翰寫〉〈手書〉〈御書〉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궁(덕종)이 생전에 쓴 『금강경』의 글씨를 세조가 模寫하여 쓴 것으로 보고 〈德宗字〉로 부르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닮게 모사를 했더라도 세조가 몸소 쓴 이상 덕종자는 될 수 없고, 〈德宗體字〉로 부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안평대군이 조맹부의 서법으로 글씨를 쓴 경우와 같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평대군의 글씨이며, 서체상으로만 송설체로 부를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그 자명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20] 이것은 한석봉이가 王羲之의 글씨를 본받아 썼다고 하여 한석봉의 글자라고 하지 왕희지의 글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이다. 즉 그것은 왕희지체자이지 왕희지자는 아닌 것이다. 서예는 쓴 사람 위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혜봉님은 이 활자를 만든 해의 간지를 따서 정축자라고 한 것이다. 고활자는 주로 주조한 해의 간지를 따서 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삼가해의 인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가람문고 소장의 『金剛經三家解』 국역본 권2-5의 4책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1, 5의 2책, 그리고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의 낙질본 3책(서, 권1, 권5)이 있다. 가람문고 소장 인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천혜봉, 前揭書(韓國 書誌學), P. 233.

金剛般若波羅密經/幹繼幀(朝鮮) 等 諺解.－朝鮮活字本(大字 丁 丑字, 中字 乙亥子, 小字 同竝用 한글자). －[成宗時]

4册, 零本(線裝) :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行字數不同. 界. 四周雙邊, 內邊郭 27×19.5cm. ; 38.6×25.2cm

所藏本 : 第2－5册(4册) 外 缺

이와 같이 고서에서 타활자와 병용된 활자 인본은 다른 활자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세종시에 병진자와 갑인자로 찍은 자치통감강목이 그런 인본 중의 하나이다.

4. 乙亥子 竝用 한글字와 竝用된 乙亥子本

을해자는 을해자 병용 한글자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인본은 주로 국역불전에 많다. 세조는 불전을 국역 간행하기 위해서 그 예비과정으로 을해자 대자, 중자, 소자를 조화있게 조판하여 한문불전을 두루 인출하였다. 이런 한문불전은 그 뒤 국역불전에로 이어졌다고 전술하였다.

바로 그 국역불전에 사용된 한글활자가 을해자 병용 한글자이다. 을해자 병용 한글자는 소자들이며, 글자체는 초기의 강직한 인서체에서 부드러운 필서체로 바뀌는 중간 과정의 활자이다. 그 인본으로 앞서는 것은 세조 7년(1461) 9월에 인출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이 책은 한문본과 같은 체제로 국역 간행하였으며, 그 인본이 여러 책 전래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한글활자는 세조 1년에 주성된 을해자와 같이 주성된 것이 아니므로 을해자 한글자라 지칭하지 않고 을해자 병용 한글자라 부른다.[21]

이 한글자는 현전하는 『楞嚴經諺解』에서 처음 사용된 활자이므로 楞嚴經

21) 上揭書, p. 283.

한글字라부르기도 한다.[22] 그리고 성종 16년(1485)에 인출된 국역본『靈驗略抄』에도 이 한글활자가 사용되었으며, 그 인본이 전래되고 있다. 판식을 특징을 알기 위해서 한글 인본『능엄경』의 기술목록을 살펴보자.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般剌蜜帝(唐) 譯 : 戒環(宋) 解.-朝鮮活字本(乙亥字).-[世祖年間]
2册, 零本(線裝) :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大字9行16字, 中字9行21字, 小字註雙行. 界. 四周單邊, 內邊郭 27×20cm ; 37.5×24.7cm.

版心題 : 楞嚴經
本館所藏 : 卷7, 8

그 병용 한글자인본으로 간년이 분명한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金剛經諺解	세조 10년	고려대화산
救急方諺解	세조 12년	첨분실서목
周易傳義(康寧殿口訣)	세조 12년	일산문고
纂註分類杜詩諺解	성종 11년	서울대도서관
金剛般若波羅密經三家解諺解	성종 13년	동국대도서관
永嘉大師證道歌南明禪師繼訟諺解	성종 13년	서울대도서관
靈驗略抄	성종 16년	한국 서지학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중종 13년	연세대도서관

그런데 어떤 목록에서는『능엄경』보다 앞서는 '을해자한글자본'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물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어떤 한글자본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구명은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그 목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23]

金剛般若波羅密經	세조 3년	고려대도서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22) 上揭書, P. 283.
23) 손보기, 前揭書, p. 423.

	세조 3년	서울대도서관
永嘉眞角大師證道歌	세조 3년	고려대도서관
金剛般若波羅密經十七家解諺解	세조 5년	세조실록
金剛般若波羅密經	세조 3년	고려대도서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세조 3년	서울대도서관
永嘉眞角大師證道歌	세조 3년	고려대도서관
金剛般若波羅密經十七家解諺解	세조 5년	세조실록

을해자와 함께 쓰인 한글활자를 강희안 한글字, 즉 을해자 한글자로 부르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며 실은 '을해자 병용 한글자'인 것이다.[24] 그런데 그 활자와 함께 사용한 한글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세조 7년(1461)에 을해자로 간행한 『楞嚴經』에서 처음 사용된 활자이므로 을해자가 아니라 을해자와 병용된 한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글활자는 세조 1년 을해(1455)에 을해자와 같이 주성된 것이 아니므로 을해자 한글자로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손보기님은 「(새판)한국의 고활자」에서 이 활자(덕종자)로 찍은 책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오가해(五家解)』라고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책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가 있는데 이에도 한글 활자를 쓰고 있다고,[25] 하였으며, 그 인본으로 같은책 도판 20에서 『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활자를 제목에서 크기순으로 "1457년 덕종자(정축자) : 1455년 강희안자 : 한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앞의 설명에 의하면 덕종자 한글자 같고, 나중의 도판에 의하면 강희안자 한글자 같으나 다른 부분의 기술방법을 참고하면 을해자의 한글자로 여겨진다. 손보기님은 1455년에 강희안 한글자(을해자)를 만들었다고 보고있다.[26] 바로 이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강반야바라밀

24) 千惠鳳, 前揭書(韓國 書誌學), p. 286.
25) 손보기, 前揭書, p. 90.
26) 손보기, 前揭書, p. 89.

경삼가해(金剛般若波羅蜜經三家解)』에 사용된 한글활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조 7년의 『능엄경』에서 처음 사용된 활자이므로 을해자와 같이 만들어진 활자가 아니므로 을해자 한글자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剛經三家解』에 쓰인 한글활자를 '德宗字 한글字'로 부르는 주장도 있으나[27] 이는 잘 못이며,[28] 그것은 '을해자 병용 한글자'라고 千惠鳳 님은 지적하고 있다.[29] 그런데 이 활자는 세조 7년(1461)에 『楞嚴經』을 간행할 때 처음 사용된 활자이지만 을해자와는 별도의 활자이다. 그 활자는 정축자본인 『金剛經三家解』에서도 사용되어 을해자본인 『楞嚴經』 등의 한글자와 다른 것으로 보고 덕종자 한글자로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한글활자이냐, 아니면 다른 한글활자이냐 비교하여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활자이면 을해자 병용 한글활자이고, 다른 활자이면 비록 명칭에는 문제가 있으나 일단 덕종자 한글자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OHP필름에 『楞嚴經』의 특정 한글자를 여러개를 복사하여, 삼가해의 동일자본의 같은 글자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니 같은 한글활자가 분명하였다. 『한국전적인쇄사』에서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제시된 도판 131 『능엄경』과 『金剛經三家解』의 '一相無相分第九'에 나타나 공통된 글자인 '호', '터', '이', '아', '후', '니', '오' 등의 글자를 투명지에 임사하여 투영하여 보면 자본이 완전한 동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金剛經三家解』의 한글자는 을해자 병용 한글자와 다른 글자가 아니라 동일한 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활자는 덕종자체 한글자가 아니라 을해자 병용 한글자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덕종자 한글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7) 손보기, 세계금속활자 발상중흥기념비, 김동욱 글씨, 1984. 11. 10 강화도 건립.

28) 安秉禧, "江華의 金屬活字紀念碑 斷想,"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簡報 3(1985), pp. 48-49.

29) 千惠鳳, 前揭書(韓國 書誌學), p. 286.

『金剛經三家解』의 한글자는 얼핏 보면 『楞嚴經』의 한글자 많이 달라 보여서 다른 한글활자로 오인하기 쉽다. 그때문에 아직까지도 을해자 병용 한글자와 다른 활자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위의 책에서 제시한 도판은 역시 실물과 같은 크기이므로 이렇게 대조하여 보아도 별 하자는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본의 감식은 주로 육안에 의하므로 정확한 고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주장이 옳은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고 좌왕우왕하는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간편한 방법이 이와 같이 OHP 필름에 특정 글자를 복사하여 해당 글자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보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활자라도 자본이 동일한 같은 글자를 찾아야지 그것이 다른 글자를 찾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활자를 식별할 때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 자체만 다른 글자를 찾을려고 하는데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활자본의 식별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Ⅳ. 乙亥子 傍系子本

1. 倣乙亥子體 木活字本

조선 전기 후반기에 접어 들면서 을해자의 소자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목활자가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김두종님은 목활자를 조각할 때에 자본을 새로 쓰는 것보다는 주자의 인본을 그대로 도각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인본으로 다음 4가지가 있다.[30]

東人策選　　중종 선조년간　　청분실서목

30) 金斗鍾, 前揭書, p. 201.

東國壯元策		청분실서목
御試策		청분실서목
漢人文選		청분실서목

위의 인본들이 전해 온 과정은 알기 어려우나 을해자소자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방을해자 목활자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물은 접하지 못하고 있다.

2. 乙亥子體 經書字本

이 활자는 16세기 후반인 선조조 전기에 새로운 활자가 잇따라 주성되면서 만들어진 활자중의 하나이다. 중자만 있으며 크기는 1.2×1.6cm이며, 을해자보다 가늘다. 이 활자로 인출한 책은 다음과 같다.

小學諺解		한국금속활자본
大學諺解	선조 23년 내사	한국금속활자본
中庸諺解		한국금속활자본
論語諺解		한국금속활자본
孟子諺解	선조 23년 내사	한국금속활자본
孝經諺解		한국금속활자본

이 인본의 활자를 종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庚辰字'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그 경진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김귀영의 『동원집』 '제주자도감계축병소지'의 의해 재주 갑인자임이 뚜렷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인본이 경진자라는 종래의 견해는 모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활자를 '한호자'로 부르는 이도 있으나, 그것은 당시 석봉의 글씨체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선입감을 가지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석봉 한호가 쓴 『호담서선생신도비명병서』를 비롯한 그의 진적과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활자를 '방을해자'로 일컫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 활자 인본

을 감식할 수 있는 안목에서 글자체에 의해 붙여진 활자명이라고 할 수 있다.[31]

이 을해자체 경서자는 을해자체를 아주 닮게 주조하였지만, 계유년의 을해자 보자판과 다른 것은 마멸된 원활자는 없고 완전히 새로 주조된 활자로 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유년에 보주한 활자 중서에 거칠게 주조된 동일 글자의 이체자를 거의 다시 주조하여 활자 모양을 고르게 하였다. 실제 문제로서 국역 경서의 인본을 원래의 을해자의 인본과 대조하여 보면, 이 활자는 을해자의 둔탁한 필획과 강회안 필적의 특징을 짙게 나타낸 둥근 필의에서 벗어나, 글자 획이 가늘고 예리하며 둥근 필의가 다소 누그러져서 단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주조의 솜씨가 정교하여 활자 모양이 가지런하고 예쁘다.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활자는 '也', '所', '於' 등이다. 이와 같이 이 국역 경서의 인본들은 원활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교체된 새로운 활자로 인출하였으므로 계유 보주의 을해자본과 판이하게 구별되고 있다.[32]

그러나 이 활자가 언제 어떤 이들이 주관하여 주조하였는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최초의 인본인 『소학언해』 권말에 붙인 이산해의 발문에 의하면, 선조 18년(1585)에 국역 경서의 교정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고 유신을 선발하여 먼저 『소학』의 구본을 바로잡고 번잡한 것을 깎아 줄인 다음 번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소학』이 다음 해인 선조 19년(1586) 여름에 끝나 깨끗이 정서하여 올리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운각에 내려 수백부를 찍도록 하명하고, 아울러 선조 20년 4월 이산해에게 발문을 쓰게 하였다. 그 뒤 『사서』와 『효경』등이 차례로 번역, 교정되어 선조 23년(1590)까지의 사이에 전부 인쇄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번역, 교정, 인쇄 및 내사과정을 살펴보면 이 활자의 주조는 『소학』의 번역, 교정을 마치고 깨끗이 정서하여 올리자 임금이 주자소에 내려 인쇄하라고 하명한, 선조 20년(1587) 정해 4월부터 수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인쇄가 늦어도 그

31) 천혜봉, 前揭書(한국금속활자본), p. 107.
32) 上揭書, p. 110.

해 연말까지 다 이뤄져서 그 다음해인 선조 21년(1588) 1월에 내사된 것이다.[33]

이 활자의 주조시기를 더 소급해 볼 수도 있으나 아무리 소급해 보더라도 번역이 끝난 선조 19년(1586) 병술 이전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이 활자의 주조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간지를 붙인 활자명을 붙이기가 어렵고, 또 그 활자를 을해자와 닮게 만들면서도 특징 있게 개주한 새로운 판종의 활자이며, 그 주조의 목적이 오로지 국역 경서를 찍기 위한 것이므로 그 활자 이름을 '을해자체 경서자', 그 한글활자를 '경서자 한글자'로 각각 이르고 그 인본을 '을해자체 경서자본'이라고 일컫게 되었다.[34]

3. 甲寅字 實錄字와 混用된 乙亥子體 實錄字本

임난후 선조 36년(1603)부터 39년(1606) 사이에 새로 인출된 태백산사고본 중에서 『세종실록』과 『연산군일기』부터 『중종실록』 32년 4월까지는 을해자와 그 서체를 닮은 목활자를 만들어 인출하였다. 대자와 소자가 있으며, 크기는 대자가 1.4×1.4cm이고, 소자가 1.4×0.7cm이며, 을해자체보다 가늘다.

또 광해군 9년(1617) 4월에 인출한 『선조실록』에도 이전의 실록에 사용한 을해자체 목활자와 새로 만든 목활자를 다른 활자와 혼용하였다. 이 실록(奎章閣)의 판식을 다음 목록에서 살펴보자.

宣祖實錄 / 春秋館(朝鮮) 奉敎撰. - 朝鮮活字本(實錄字). - [光海 君 9(1617)]
221卷 116册(線裝) :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16行27字, 註雙 行. 界. 四周雙邊, 內邊郭 34.4×25.6cm : 43×31.4cm.

33) 上揭書, p. 111.
34) 上揭書, p. 111.

卷頭書名：宣宗昭敬大王實錄
版心書名：宣祖大王實錄
諸臣銜名：萬曆三十七年(1609)七月十二日春秋館奉敎始撰, 萬曆四 十四年丙辰(1616)十日月畢撰 奇自獻 等

다른 활자란 『태조실록』부터 『태종실록』까지, 『문종실록』부터 『성종실록』까지, 그리고 『중종실록』(32년 5월과 39년 12월), 『인조실록』, 『명종실록』까지의 실록에 사용한 갑인자체 목활자와 새로 만든 목활자를 말한다. 즉 갑인자체 활자와 을해자체 활자가 혼용된 것으로 이를 선조실록자라고 부르고 있다.

4. 乙亥子體 訓練都監字本

을해자를 나무로 모방하여 만든 활자로 을해자체 훈련도감자가 있다. 중자와 소자가 있으며, 크기는 대자가 1.3×1.0cm이고, 소자가 1.0×1.0cm이며, 을해자체보다 가늘다. 이 활자는 비록 목활자이만 역시 을해자의 특징을 살피게 하므로 한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활자체는 어느 때부터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최초의 인본으로 김두종님은 광해군 5년에 간행한 『東醫寶鑑』을 들고 있다. 본 활자의 인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5]

東醫寶鑑	광해 5년	일산문고
纂圖方論 訣集成	광해 5년	일산문고
酸瘟神方	광해 5년	일산문고
簡易酸瘟方	광해 5년	규장각
新纂酸瘟方	광해 5년	규장각
神應經	인조 21년	일산문고
走者眞西山競演講義		일산문고

35) 金斗鍾, 前揭書, p. 289.

老子集解	일산문고
武經直解	일산문고
六韜直解	일산문고

이상의 판본들은 주로 관찬의방서 및 병서 등의 인쇄에 사용되었다. 『동의보감』의 판식을 살펴보면 역시 을해자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 雜病篇, 卷7 / 許浚(朝鮮) 奉勅撰. - 朝鮮活字本(乙亥子 體訓鍊都監字). - [光海君年間]

1册, 零本(線裝) :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10行21字, 註雙行. 界. 四周雙邊, 內邊郭 32.7×20cm : 37.5×24.7cm.

V. 結 語

을해자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여 을해자본을 유형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것과 혼동하기 쉬운 방계자본도 함께 고찰하여 보았다.

을해자는 세조 원년에 주조되어 임난 이전 까지 사용되어 온 관계로 그 인본의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식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인본을 통하여 들어난 자체는 진축 겸체라는 것이다. 즉 강희안이 쓴 을해자체는 촉체인 송설체보다는 진체체인 왕우군체에 가까운 편이나 진체의 혜서체로 폭이 길이보다 좀 넓은 듯하나 필치가 웅건하여 촉체와 비슷한 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을해자 인본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初鑄 乙亥子本, 補字와 補鑄 乙亥子本, 丁丑字와 竝用된 乙亥子本, 乙亥子 竝用 한글字와 竝用된 乙亥子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을해자본은 세조시의 을해자본으로 인면이 아주 깨끗한 책이며, 보자와 보주의 을해자본은 중종, 명종 연간에 을해자를 보충하여 인출한 책이고, 타활자 병용 을해자본은 별개의 활자인 정축자와 함께 찍은 책이며, 을해자 병용 한글자본은 을해자와 한글자를 함께 사용하여 인출한

책이다.

또 16세기 후반인 선조조 전기부터는 을해자를 모방한 만든 활자로 인출한 서적들도 많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을해자가 우수한 활자이기 때문이다. 을해자는 임난 이전까지 조선 시대에 가장 우수한 활자로 인정되는 갑인자와 쌍벽을 이루면서 사용된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본들을 살펴봄으로써 을해자가 얼마나 우수한 활자라는 것을 재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을해자본도 더욱 분명하게 감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을해자 방계자 인본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倣乙亥子體 木活字本, 乙亥子體 經書字本, 甲寅字體 實錄字와 混用된 乙亥子體 實錄字本, 乙亥子體 訓練都監字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을해자체 목활자본은 을해자의 중소자만을 모방하여 나무로 만든 방을해자체 목활자로 간행한 인본이며, 경서자체 을해자본은 을해자를 닮게 주조한 활자로 인출한 책이고, 을해자체 실록자본는 을해자체 목활자를 만들어 갑인자체 목활자와 혼용하여 인출한 것으로 선조실록이 있으며, 을해자체 훈련도감자본은 을해자를 모방하여 나무로 만든 활자인 을해자체 훈련도감자로 찍은 책이다. 이런 활자본도 가끔 을해자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을해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방계자본도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들은 자체가 외관상 을해자와 비슷하나 자획의 태세에 있어서 대체로 을해자보다 가늘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물론 자체의 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으로서의 구분은 쉽지 않다. 그것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대자〉	〈중자〉	〈소자〉
을해자	1.8×2.3cm	1.3×1.5cm	1.0×1.0cm
경서자		1.2×1.6cm	
실록자	1.4×1.4cm		1.0×0.7cm
훈련도감자		1.3×1.0cm	1.0×1.7cm

그러므로 을해자본과 방계자본을 직관적으로 구분할려면 그 크기보다는 우선 자획의 태세를 보면 된다. 물론 전문적인 방법은 정교도를 보는 일이지만

초학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을해자체 목활자는 실제로 인본을 접할수 없어서 자체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을해자 소자와 비슷할 것이다.

을해자 인본 중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세조 7년(1461)에 인출한 『훈사』의 대자와 성종 13년(1482)에 인출한 『金剛經三家解』의 한글자이다. 전자의 활자를 훈사대자, 후자의 활자를 강희안 한글자(을해자 한글자)나 덕종자체 한글자라고 부르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HP필름에다가 특정 글자의 면을 複寫하여 다른 판본의 같은 글자 위에 올려 놓고 투영하여 본 결과 전자가 을해자 대자고, 후자가 을해자 병용 한글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을해자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런 문제는 육안에 의존하여 감식하였끼 때문이 야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일 활자냐 아니냐를 식별하는데는 이와 같이 OHP필름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같은 크기의 활자라도 동일 자본의 같은 글자를 찾아야지 무조건 자획이 다른 글자를 찾아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활자본 식별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는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이 다르면 자획이 다르고, 자획이 다르면, 보자나 보주가 아닌 이상 그 책 내에서 반드시 그것과 동일한 자본의 같은 글씨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식별에 오류를 범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金剛經三家解

金剛經五家解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求堂, 1974.

成宗實錄, 5年甲午11月癸酉條.

成俔. **慵齋叢話**, 卷7 活字條.

손보기. (새판)한국의 고활자. 서울 : 寶晉齋, 1982.

首楞嚴經, 國譯本 卷末 天順辛巳(世祖7, 1461) 9月日 御製跋.

尹炳泰. **朝鮮朝大型活字考**. 석사학위논문. 연세대대학원, 1975.

李仁榮. "乙亥子小考." 書物同好會報(書物同好會). 17號(1942). pp. 26-29.
千惠鳳, "丁丑字攷." 歷史學報(歷史學會). 35 36(1967).
_____,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_____, 한국목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_____, 韓國 書誌學. 서울 : 民音社, 1991.
_____,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A comparative study of Ŭlhacha-printed versus Imitating Ŭlhacha-printed books

Kim, Chi-Woo*

〈Abstract〉

The primary pou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 specific characteristic of Ŭlhacha-printed books with Imitating lhacha-printed books to distinguish from each others.

Ŭlhacha was made in the first year of King Secho (1455) used before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re are many kinds books printed with it. For this reason, Ŭlhacha used to printed books for long period, the letters were worn down and must be filled up with supplementary letters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chong and Myungchong. And at the early times of King Suncho, Many letters were suppliment and printed many kinds of books very neatly.

Ŭlhacha-printed books were classified four sorts of book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 to examine closely.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6th century, the beginning of King Suncho, what is called Imitating Ŭlhacha-printed book, many copies of book were printed off imitated with Ŭlhacha. Imitating Ŭlhacha-printed books also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ngsung University

classified four kinds of book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

Being glance at imitated letters, they were similar to Ŭlhacha and confused one thing with another. To distinguish Ŭlhacha-printed books from imitated letter ones, it is important to discriminate each others. Gernerally speaking, imitating Ŭlhacha letters were resemblant Ŭlhacha closely,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Ŭlhacha from imitated letter. But they have a tendency to exhibit more thin style than Ŭlhacha and different from its size.

Out of Ŭlhacha-printed books, the big letters in Hunsa printed in the 7th years of reign of King Secho and Hangŭlcha in Kŭmgang panya paramil kyong samgahae prinred in the 13th years of the reign of King Sung chong come in to question.

Neverthless the big letters in Hunsa is consider to be that of Ŭlhacha and Hangŭcha in Kŭmgang panya paramil kyong samgahae also to be Ŭlhacha mixed with Hang lcha, disagreement of opinions has been apted to give rise to problem. In order to verify such a problem, it is more convenient to use OHP film copied those letters than the naked eyes. As a result of collating with OHP film, the problem was proven to be above-mentioned.